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국민의사회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다나은 가족정책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 12. 12(수)	담당부서	센터지원본부 돌봄지원부, 센터지원부
	담당자	부 장 : 유혜선(02-3479-7710), 하유미(02-3479-7730)
		담 당 : 김영덕(02-3479-7713), 강은정(02-3479-7734)
	■ 총 5쪽(붙임 2쪽)	

“함께 나누어요 가족서비스로 얻은 일상의 행복과 보람”

— 2018년 아이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시상식 개최 —

■ 아이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우수기관(10점), 우수사례(21점) 시상

- 일보다 가정을 우선하는 가정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보육시설 마치는 시간에 허겁지겁 뛰어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반복적인 시간 속에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 (중략) 이런 환경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는 바쁜 등하원시간에 아이들에게 “빨리 빨리!”라는 재촉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줄 수 있게 되었다.
- 직장 일에 지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놓치기 쉬운 우리 부부에게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이 얼마만큼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며 아이들과의 기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 주신다. 이제 나는 아내의 꿈도 응원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의 아빠가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최우수 사례 요약〉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12월 12일(수) 오후 2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소재한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에서 한 해 동안 아이돌봄 및 가족서비스 분야에서 수고한 100여 명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2018년 아이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 시상식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우수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활동사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가족서비스 우수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된 기관 등 가족사업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공동육아 나눔터의 사례발표도 있어 각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아이돌봄지원사업 10개소이며, 가족서비스 우수사업 공모전 선정기관 22개소, 이용수기 선정작은 아이돌봄서비스 17점과 공동육아나눔터 10점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기 최우수작은 직장근무로 타 지역에 오게 되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중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움으로 가정과 직장 생활 모두 안정을 찾게 된 아버지의 사연을 담았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최우수작은 5년차 아이돌보미로 아이들의 장점과 욕구를 잘 파악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아이돌보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하루에 한번은 아파트 단지 안의 공원으로 놀러 나가 자연을 마음껏 보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크고 작은 나무들, 나뭇잎,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하늘, 바람 등을 설명해주면 아이는 잘 듣고 따라서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밝은 미소로 얼굴은 환해졌다. ... (중략)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매사에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잠자기 전 누워서 아이랑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힘든 것은 사라지고 입가엔 웃음이 피고 평안하게 잠이 들곤 한다.

〈아이돌보미 최우수 사례 요약〉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에 당선된 17점의 작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 가족서비스 우수사업 공모는 4개 영역, 즉 △가족관계증진 △가족돌봄강화 △가족생활증진 △공동체의식함양에서 진행되었고,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2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중 최우수 4점, 우수 8점, 장려상 10점으로 총 22점이 선정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확대(‘18년 2.3만 명 → ’19년 3만 명) 및 정부의 지원 비율을 강화하였다.

-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18년 120%), 정부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18년 600시간)으로 늘려 소득이 적은 가정이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김혜영 이사장은 “한 해 동안 아이돌봄 사업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소개된 감동적인 우수사례를 통해 가족사업이 더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붙임】 1. 시상식 계획
2. 수기공모 당선작(요약)

붙임 1 **시상식 계획**

□ 개 요

- 일시 : '18.12.12.(수) 14:00~15:00
- 장소 : 서울조달청사 별관 3층 대강당
- 참석 인원 : 약 100여명
 - 한가원 이사장, 센터지원본부장, 사업별 담당자
 - 분야별 센터장 및 종사자, 우수사례 당선자 등
- 상장수여(총31점) : 장관상 19점, 이사장상 12점
 - * 상장수여는 아이돌봄평가우수기관(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 (최우수⑧, 공동육아나눔터이용 최우수①), 가족사업우수기관(12) 수상자 직접수여

※ 포상규모: 총 59점(장관상 31점, 이사장상 28점) * 부상은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구분		장관상					이사장상				합계
		서비스기관		수기공모			수기공모	우수사업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 규모	아이돌봄	1점	9점	2점	6점	9점	-	-	-	-	27점
	공동육아	-	-	1점	3점	-	6점	-	-	-	10점
	가족사업	-	-	-	-	-	-	4점	8점	10점	22점

*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가족사업 등 통합 시상식 운영

□ 진행 순서(안)

식 순	시 간(분)	내 용	비 고
식 전	~14:00	참석자 입장	-
개 회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
격려사	14:05~14:15 (10')	이사장님 격려말씀	
사례발표	14:15~14:30 (15')	수기공모 당선작 발표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사례 공동육아나눔터 우수사례
시 상	14:30~14:50 (20')	장관상, 이사장상 수여 및 기념촬영	장관상 13점, 이사장상 12점 *아이돌봄평가우수기관(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사례(8), 공동육아이용사례(1), 가족사업(12)
폐 회	14:50~	폐 회	-

붙임 2 수기공모 당선작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 분야

시상	지역	성명	수기 제목	내용(요약)
최우상	대구	박기호	우리공, 우리가족 그리고 우리 돌보미 선생님	• 맞벌이로 인해 엄마와 아빠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용자 또한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등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 서비스이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아내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여유있는 마음의 아빠가 되었음.
우수상	서울	나지영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과 퇴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 복직을 선택한 후 좌절감에 시달렸던 이용자는 까다롭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를 유연하게 양육하고 육아 조연과 격려로 이용자에게 큰 힘이 되면서 돌보미 선생님이신데 대해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음. • 아이를 낳아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이 아이를 통해서 돌보미 선생님이라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경력단절 없이 직장에서 계속 꿈을 펼칠 수 있게 됨.
	광주	임해정	한방 해결사 전** 선생님	•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원생 부부로 아내의 병환으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생김. • 육아에만 전념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아이의 사진과 성장 동영상을 보내주고, 육아의 팁도 전수 하면서 아이의 단순 돌봄 선생님이 아닌 부부의 제2의 엄마라고 느끼게 해줌. • 학생 부부라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부부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것은 해결사 같은 돌보미 선생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함.
	전북	이하나	동행, 소중한 육아의 길을 함께 걷다	• 3년간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여 세 딸의 양육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성장과 더불어 이용자의 직업적인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분야

시상	지역	성명	수기 제목	내용(요약)
최우상	세종	최항정	닌닌닌니 사랑해요	• 5년차 아이돌보미로 아이돌보미 직업을 즐기고 있음. • 아이들의 장점과 욕구를 잘 파악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로 성장함 미래의 추억들이 잘 지나라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음.
우수상	서울	김영현	다시 꾸는 꿈	•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다 아이들 다 키우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냄. •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아이 키우는 방법을 새롭게 배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중년을 보내고 있음
	대전	한춘자	오늘도 춘자의 전성시대	• 10년간의 아이돌보미 활동은 돌보미 자신뿐만 아닌 돌보미 가족에게도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고 있음. • 아이돌보미는 단순 아이 돌봄이 아닌 이용자 가정에게 양육방법 전수 및 그들의 생활이 순조롭게 이어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보람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일이라고 믿고 있음.
	경북	이정화	손과 입으로 말하는 아이돌보미	• 은행을 다니던 시절 동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잘 키움. 나중 에 기회가 되면 아기 엄마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함. • 우연한 기회에 수화를 배웠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던 중 수화가 가능한 돌보미를 찾는 일이 생김. • 청각장애인 엄마와 아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음.